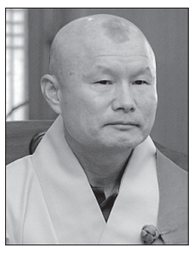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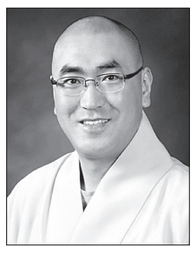
종회의원 보궐, 진화 · 가섭 스님

직능대표선출위, 2월 24일 만장일치



진화 스님



가섭 스님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직능대표에 입후보한 前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과 前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원행)는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 선출의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당선된 두 스님의 임기는 2월 27일부터다.

진화 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과 1986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광주 증심사 주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을 역임했다.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4년 사미계를, 200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안양암과 청용암 주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 교육국장,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금강대 신임 총장에 정용덕 교수

제8대 총장, 2월 24일부터 4년간



천태종립 금강대 신임 총장에 정용덕(71 · 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금강대(이사장 도용, 천태종 종정)는 2월 13일 대학 대회의실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총장으로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2월 24일부터 4년간이다. 앞서 금강대는 신임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송희연 제7대 총장 후임을 물색해왔다.

정용덕 총장은 서울대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과 서던캘리포니아대 대학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연구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사학과학협의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총신대 관선이사장을 맡았다.

윤호섭 기자

"불교-사회 소통창구 국회의원 역할 중요"

Interview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정우식 후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생에너지경제분야 전문가
대불청 회장 등 교계 경력도
"불교 현안 해결에 역량 기여"

"과거 1990년대만 해도 국회의원 중 절반이 불자였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 가장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3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불교와 사회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인재도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발전과 불교중흥에 힘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불교계에서 대한불교청년회장과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정 부회장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재생에너지 전문가다.

정 부회장은 2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국가 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재생에너지경제'로 꼽은 뒤 자연과 뗄 수 없는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경제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경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경제로 탈바꿈하지 못한 나라는 세계경제의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환경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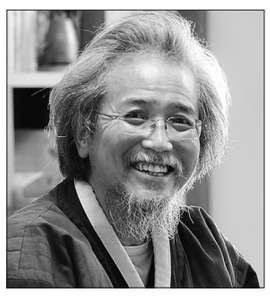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각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재생에너지경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개인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2위, 국가는 7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3020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 부회장은 스스로를 국가의 경제와 세계적인 기후 · 환경 극복을 위한 '조력자'로 칭했다. 앞장서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함께 발맞춰 더 큰 울림을 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종교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연과 함께하는 불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불교계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법과 제도에 얽매여 있습니다. 가장 핵심 당사자인 불교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관람료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하지만, 노력이 부족해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불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염병 극복 지혜 율장에"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장 〈비나야삐따까〉 출간해



부처님 당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담은 빠알리 율장이 우리말로 처음 완역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사진〉은 2월 25일 〈비나야삐따까〉 출간을 알렸다.

〈비나야삐따까〉는 부처님 재세 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남긴 해법과 이후 승단 내 규율을 담은 율장(律藏)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최초로, 완역으로는 영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비나야삐따까〉는 총 2부 6권으로 이뤄져 있다. 다발부는 1권 '마하박가(大品)', 2권 '쭐라박가(小品)'로 구성됐다. 마하박가는 부처님 정각부터 열반까지의 주요한 전법 가르침과 자자 포살, 구족계 등의 규칙을 설한 것이다.

쭐라박가는 승단 회의를 뜻하는 갈마의 절차와 방식, 오백결집과 100년 후 승단 분열시의 문제를 다룬다. 2부인 분별부는 3권 '빅쿠비방가', 4권 '빅쿠니비방가(比丘尼分別)', 5권 '빠리바라(附隨)', 6권 '빠띠목카(波羅提木叉)'로 이뤄져 있다.

빅쿠비방가는 비구가 지켜야 할 227계율이 생겨나게 된 당시 실제 사건의 인연담이며, 빅쿠니비방가는 비구니 311계율이 생겨난 인연담과 학습계율 및 의무계율이 설해져 있다.

전재성 회장은 "율장은 불교사상의 중심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불교가 케케묵은 신화가 아닌 2500년 전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정리된 논리와 언어사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율장에는 인도사회에 있었던 폭력, 전쟁, 사기, 성문제 등 현대사회에도 적용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 회장은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 발생 시 부처님이 어떻게 승단에 대처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기록 등도 남아있다. 위생과 방역을 위해 승단에 규범을 담아 향후 질병에 대한 예방도 당부한 기록"이라며 "계율에서 품행이 바른 수행승을 찬하고, 비행의 위계승을 분개하고 비난하는 것은 역사적인 공동체적 삶에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가르침을 준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번 율장 번역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7년간 매일 정진해왔다. 이번 비나야삐따까는 양장본으로 총 3584쪽에 6권의 율장과 7327개의 주석이 수록됐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빠알리어 한글표기법 및 부처님 탄생과 가계도, 승단의 옷에 대한 고찰, 의무 계율의 부파별 조항수 대조표 등도 함께 실렸다.

노덕현 기자

동행 상임이사에 일화 스님

원행 스님, 2월 26일 임명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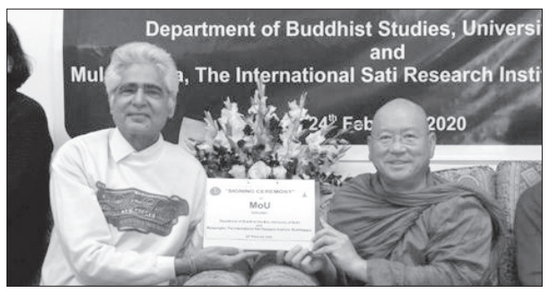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일화 스님에게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임명장을 전달했다. 일화 스님은 청학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조계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화엄사 선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황련사 주지 및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인도 물라상가-델리대 MOU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



통도사 청하문도회 인도법인 '물라상가'는 2월 24일 인도 델리대와 MOU를 체결, 앞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과 교수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한편 학교 내에 명상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사띠 수행 지도와 명상강좌가 열리며, 세미나 · 워크숍 등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

윤호섭 기자

남원 경찰서 경승 위촉식

운봉 · 승묵 · 원명 · 성환 스님 등 4명



전북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월 20일 2층 소회의실 초롱마루에서 선원사 운봉 스님, 실상사 승묵 스님, 대복사 원명 스님, 극락암 성환 스님을 신규 경승위원으로 위촉했다. 함현배 서장은 "경승위원의 안전한 남원 만들기 동참을 환영하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남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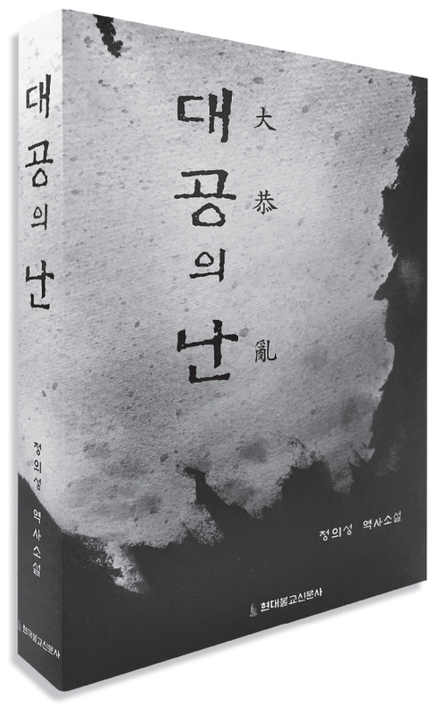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